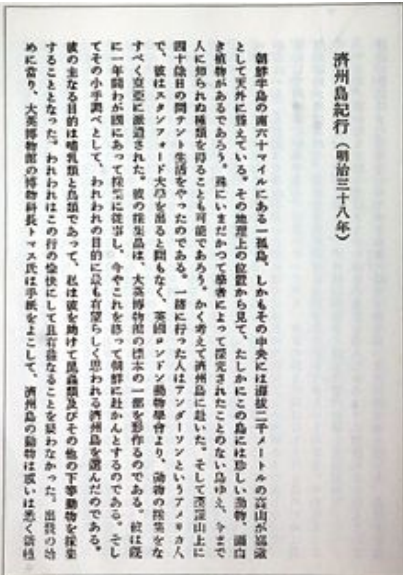


#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이치카와' 1905년 세계에 첫 전파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1.14. 00:00:00



##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 1.외국에 알려지다

“조선반도의 남쪽 60마일에 위치한 외로운 섬, 더구나 그 중앙에는 해발 2천미터의 고산(高山)이 의연히 높이 솟아 있다. 그 지리상의 위치로 보아 틀림없이 이 섬에는 진귀한 동물, 흥미로운 식물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학자들에 의해 탐구된 적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류를 얻는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두 명의 이방인이 1905년 7월 일본 규슈 나가사키(長崎) 항구에서 한국행 배에 오른다. 당시 동경제국대학에 재학중이던 약관 20세의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1886~1970)와 미국의 동물학자 앤더슨.

이치카와는 제주로 떠나기전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가 훗날(1956년)에 저술한 '나의 박물관(博物誌)'에 실렸던 '濟州島紀行'의 첫 대목이다. 이 기행은 1905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제주에서의 기록을 담고 있다.

그와 동행한 앤더슨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자마자 얼마안돼 영국 런던동물학회로부터 동물 채집을 위해 동아시아로 파견됐던 인물. 앤더슨은 포유류와 조류, 이치카와는 그를 도와 곤충류와 그 밖의 하등동물을 채집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러 종의 식물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들은 8월 9일 제주에 도착후 악천후 때문에 한라산 정상에 오르는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암고란(岩高蘭)'을 발견한다. 그들은 9월 27일까지 40여일간 제주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곤충 외에도 식물 60여점을 채집한다.

이치카와가 채집해간 암고란은 남한에서는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시로미'를 지칭한 것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시로미를 암고란으로 부른다. 시로미(시러미)는 순수한 제주방언.

이치카와 일행은 제주기행을 마치고 9월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수집 점의 식물과 동물 표본을 가져간다. 제주식물이 외부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가 꼭 1백년째 되는 해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가 제주도 근대 식물연구의 기원이며 제주식물이 비로소 외부세계에 알려진 첫 사례로 보고 있다. 이 표본은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등에 의해 감정·발표된다.

이치카와는 이후 일본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문과대학 언어학과를 졸업, 영국에 유학한 후 도쿄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일본 영어학계의 제1인자로 명성을 날렸다.

이치카와 일행의 제주체류 기간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한국에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하던 해였다. 굴욕적인 을사조약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치카와가 그의 박물관지 '제주도기행'에서 제주를 가리켜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도(日本島)'라고 한 대목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시작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제국주의적 인식의 발로다. 당시 제주에는 일본인의 세력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때였다.

그는 또 이렇게 촉구했다. "일로(日露)전쟁의 결과,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이를 개발하고 지도하는 의무가 일본민족의 두 어깨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동물 식물같은 것은 아직도 답사된 일이 없다. 전혀 암흑의 베일에 쌓여 있다. 이 암흑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동식물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임무일까".

카이의 장례식(1952년)에서 있었던 추도사의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나카이와 함께 제주식물을 처음 감정했던 다케다 히사요시(武田久吉)는 추도사에서 제주의 식물을 연구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치카와군이 학생시절 미국의 동물학자(앤더슨)를 따라 조선의 제주도에 가서 곤충 외에 식물도 다소 채집하여 돌아왔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도 완전하지는 않고 '부서진 조각' 같은 것 뿐이었지만 당시 조선의 식물은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이라고는 하나 귀중한 자료였다". 나카이는 이치카와가 가지고 온 식물표본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22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 식물지'를 저술하게 된다. 나카이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치카와는 자신이 제공한 '부서진 조각'이 세계적 식물연구에 공헌을 하게 됐다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훗날 회고한 것이다.

한편 일본인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는 제주도의 부원(富源)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의 지리, 교통, 어업, 농업, 임업, 기후, 풍토 등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를 출판한다. 이때도 1905년이다. 학자들은 이 보고서도 넓은 의미의 제주도 생물사 연구의 기원이라고 평가한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 또한 없으며 그래서 역사는 인생의 교본이라고 한다. 제주식물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1백년전의 역사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인들에게 교훈이자 따끔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사진설명]이치카와가 1905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제주도식물을 채집할 당시의 내용을 직접 기록한 '濟州島紀行'(1997년 우당도서관 번역서 발간).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